

정부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발전방안 논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Improving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Focusing o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황병용(Byung Yong HWANG)*, 김대철(Dae Cheol Kim)**, 이장재(Jang Jae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분석결과 |
| III. 연구모형과 가설 | VI. 결론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출연(연) 성과향상을 위한 기관평가시스템의 발전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연구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연구기관 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결과 수용성은 연구기관 성과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과가 높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평가결과 수용태도도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의 전반적 취약점들에 의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고, 정부 및 연구회 차원에서도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 정부 연구회, 출연(연) 기관평가, 평가결과 수용성, 연구기관 성과

※ 논문접수일: 2009.2.4, 1차수정일: 2009.3.15, 2차수정일: 2009.3.18, 게재확정일: 2009.3.2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byhwang@kistep.re.kr, 02-589-2863,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부교수, dckim@hanyang.ac.kr, 02-2220-104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jilee@kistep.re.kr, 02-589-2832

ABSTRACT

As a means to address the modes of developing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imed at improving performances of GRIs, this study looked into the influential relations wher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has an impact on receptivity of evaluation outcomes and performances of institutes optimize their performances.

After making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RIs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performances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ceptivity of evaluation outcomes is related to performances of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institutes with high performances, in general, have high level of receptivity of evaluation outcomes along with positive recognition of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However, weaknesses of the Council's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RIs resulted in low level of receptivity amongst GRIs, and thus there is limitation on the government and the Council in the active utilization of evaluation outcomes.

Finally, it addressed the limi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research outcomes.

Key Words : National Research Councils,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receptivity, Performance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한다) 기관 평가를 실시한 이래, 출연(연) 기관평가가 연구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피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순응하게 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송환빈, 2004)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민형(2001), 김병태(2004), 엄준용·조홍순(2007) 등에 의하면 1999년 이후 매년 출연(연)은 기관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보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회 체제는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99년에 5개 연구회를 출범시킨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감독관청의 이관 등을 거치면서 출연(연)에 대한 관리의 개념을 새롭게 해 왔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2005년 7월 기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동 연구회의 출연(연) 기관평가는 23개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부여한 대규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통상 기관 평가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기관평가에 대한 소관 연구기관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황병용, 2006). 이러한 현상은 기관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 기관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에서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기관평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던가, 평가결과가 연구기관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도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평가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출연(연) 기관평가의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관평가시스템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연구 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덧붙여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에 관한 인식과 수용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을 통해 출연(연) 성과향상을 위한 기관평가시스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중 공공기술연구회의 폐지와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재편 등을 고려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 7월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년 반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출연(연) 기관평가 실태

동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 1. 29 제정, 2005. 5. 31 일부개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 29 제정, 2005. 6. 30 일부개정)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2005. 7. 29 제정)에 근거하여 매년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출연(연) 기관평가 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기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유용성 인정수준을 살펴보았다. 3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분포는 <표 4>를 참조 바란다. 분석에는 기관별 데이터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첫째, 연구회 통합 전·후의 기관평가시스템을 비교해 볼 때 현행 평가시스템이 개선되었는가를 질문하는 항목에서는 평균 3.83점으로 연구기관 구성원들이 다소 개선의 여지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회 통합 후 시행된 두 차례의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선호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평균 3.53으로 연구기관 구성원들이 다소 개선의 여지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평가시스템이 소관기관 경영 및 연구 역량과 구성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평균 3.50으로 연구회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구기관 구성원들이 실제로 기관평가시스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차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설문이 7점 척도인 점을 감안하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평가시스템 유용성에 대해서

<표 1>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유용성 인정수준과 기관별 차이

항목	4-1	2-1	1-1	1-2	2-2	2-3	4-2	1-3	3-1	3-2	2-4	3-3
개선	1.63	2.29	2.50	2.43	5.52	2.77	3.05	3.43	5.30	3.37	3.28	3.81
선호	2.13	2.14	2.00	2.05	5.32	2.47	2.95	3.13	4.85	3.03	2.97	3.29
만족도	1.63	2.14	1.50	2.1	5.52	2.67	2.95	2.97	5.22	2.87	2.90	3.32
항목	1-4	4-3	3-4	3-5	1-5	3-6	3-7	2-5	4-4	4-5	2-6	평균
개선	3.87	4.19	3.97	4.52	4.00	4.04	4.37	5.04	4.38	5.35	5.09	3.83
선호	3.33	3.71	3.83	4.31	3.56	3.87	3.95	4.44	4.00	5.15	4.74	3.53
만족도	3.55	3.52	3.67	4.10	3.66	3.91	3.85	4.59	4.00	4.95	4.85	3.50

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을 연구분야를 기준으로 4개 유형별로 분류함.
경제정책분야 5개기관: 1-1에서 1-5, 자원·인프라분야 6개 기관: 2-1에서 2-6,
인적자원분야 7개 기관: 3-1에서 3-7, 공공정책분야 5개 기관: 4-1에서 4-5.

‘보통’ 정도의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별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기관간 차이가 다소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들은 동 연구회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의 기본적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하 구체적인 기관평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평가목적 및 평가결과 활용

연구회가 2006년 기관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한 4가지를 보면 출연(연)의 공공성과 책무성 및 혁신성 확보, 출연(연)의 자율성 제고, 연구생산성과 경영효율성 촉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효과적인 두뇌기관 역할 도모 등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이들 평가목적들은 거시·미시적, 장기·단기적 범위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목적이 기관평가 참여주체들의 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엄준용·조홍순, 2007).

평가결과 활용목적은 살펴보면 출연(연)에 대해서는 기관 발전방향 모색, 연구회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장기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국무총리실은 출연(연) 지원·육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차년도 예산편성에의 활용 등 광범위한 활용목적은 갖고 있다. 그러나, 평가대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평가계획이 수립되고 평가목적 및 내용 등이 선언되기 때문에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동 연구회의 평가항목 및 지표는 <표 2>와 같이 크게 연구 분야와 경영 분야로 구성되어

<표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별 평가항목 및 지표

년도	평가항목 및 지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분야 13개 항목 29개 지표 - 연구분야(공통지표: 4개 항목 9개 지표, 특성화 지표: 4개 항목 8개 지표) - 경영분야(공통지표, 5개 항목 12개 지표)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대 분야 12개 항목 25개 지표 - 연구성과 분야(3개 항목, 6개 지표) - 관리 분야(공통 지표, 9개 항목 19개 지표)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대 분야 12개 항목 25개 지표 - 연구성과 분야(3개 항목, 6개 지표) - 관리 분야(공통 지표, 9개 항목 19개 지표)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편람(1999-2007)

있으며 출연(연) 경영전반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도 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연구기관들이 개별 평가지표 및 항목에 대한 백화점식 경영을 지양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순위를 가진 전략적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007나)한 평가위원단의 제언은 눈 여겨 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시적, 미시적, 장기적, 단기적 성격을 가진 평가항목 및 지표가 혼재되어 있다. 덧붙여 현행 평가항목 및 지표들은 기관의 현 상태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개선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어 전년에 비해 많은 노력을 한 기관보다 한 번의 투자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나)는 평가위원단의 제언이 설득력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끝으로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주체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이나 가중치 등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기관 특성이나 유형에 따른 차별성이 미흡하고, 평가 지표간 인과 관계와 역량 및 성과 지표간의 불균형, 평가대상기간 중 혹은 기간 종료 이후에 평가항목 및 지표가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출연(연) 정책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평가기준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 각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정부 및 연구회와 출연(연)들 사이에 합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연(연)별로 연구 성과의 경우는 연구 분야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는 등 절대평가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평가항목별 점수에 의해 평가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피 평가대상기관인 출연(연)은 연구분야 특성은 물론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관의 연륜 등 외형적 지표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4) 평가 참여주체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서 평가주체와 평가대상과의 관계는 전술한 관련법률 및 정관 등에 의해 형성된다. 법에 의하면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및 연구회가 평가주체가 되며, 평가대상으로는 소관 23개 출연(연)들이 있다.

또한, 연구회에서 수행되는 출연(연) 기관평가는 임시로 조직된 평가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평가단의 구성 측면에서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평가단의 전문성과 정직성 그리고 책임성을 고려한 구성과 이들의 사전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평가방식

평가방식은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참여주체들 간에 지식의 소통 및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방식을 보면 1단계 출연(연)의 자체평가와 2단계 정부 및 연구회의 외부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평가항목 및 내용에 대해 평가단을 달리하여 중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 문제와, 1단계 평가결과와 2단계 평가결과의 차이에 대해 출연(연)의 입장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덧붙여 2단계 평가과정에서 출연(연)과 평가단이 대면접촉을 통해 지식을 충분히 소통하고 이전하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출연(연)이 평가과정에서 현재 보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6) 인센티브 배분

연구회의 2006년도 업무성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가)에 따르면 '05년도 출연(연) 기관평가결과를 첫째, 소관 출연(연) 발전방향 수립 및 연구방향 기획 등에 활용, 둘째, 기관장의 연봉을 이사회 의결(28차 이사회, 2006. 12. 21)을 거쳐 기관별 차등 배분, 셋째, 2007년도 소관 출연(연) 예산심의(25차 이사회, 2006. 9. 25)시 기관고유사업비를 차등 배분하고, 연구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연구비 증액분(기관고유사업비의 3%)'을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전략적 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규모나 배분방식은 출연(연)의 사기진작이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출연(연)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기관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도 평가결과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규모를 높이고, 분배방식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나).

2.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출연(연) 기관평가는 공공프로그램 평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부 및 연구회가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여 기관수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정의할 수 있고, 영국을 비롯한 평가선진국에서는 연구회(Research Council)에서 외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출연(연) 기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련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기관평가를 위한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최희운(1987), 민철구 외(1994), 노희준 외(1996), 이철원(1997), 김재영·황병용·변재선(2001), 엄준용·조홍순(2007) 등이 있으며, 출연(연) 성과평가에 BSC 모형 접근법을 제안한 이민형(2001, 2005), 이장재 외(2003), 남영호·김병태(2005)의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지적자본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이찬구·이성국(2004) 등이 있으며, Meta평가 관점에서의 연구로 송형주(2002), 이찬구(2004), 황병상·강근복(2005)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평가제도에 관한 외적인 틀과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측면의 논의와 평가 도구측면에서의 분석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평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인 피평가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성요인 측면과 수용성에 따른 연구기관 성과와의 관계규명에 까지 이르는 데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기관평가시스템의 성패는 평가주체가 기관평가시스템의 체계와 운영 절차를 여하히 갖추어 평가대상인 출연(연)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기관평가시스템의 세부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세부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기관평가시스템 체계와 관련된 요인

(1) 평가목적 및 평가결과 활용목적의 합리성

먼저 평가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Vedung(1997)은 정책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성 확보, 사업 개선, 지식향상 등을 들고 있고, Chelimsky(1989)는 행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책형성, 집행, 책무성에 관한 정보획득을 강조하였다. Chester(1995)와 Kerssens-van Drongelen & Cook(1997) 등은 성과평가의 목적을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진단으로 구분 하였는데, 목적에 따른 적절한 측정방법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평가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정적 목적, 둘째, 정책과정의 효과성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목적, 셋째, 책무성 확보와 여론 활성화에 관한 정치적 목적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평가시스템의 일차적인 목적이 출연(연)들로 하여금 목표 및 성과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책임과 자율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평가목적에 따라 출연(연) 기관평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결과의 활용목적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대체로 Rich

(1977)가 구분한 바와 같이 평가결과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도구적 활용(Instrumental Use)과 관련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활용(Conceptual Use)을 기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유용한 정보가 생성되어야 하며, 피드백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박재희, 2002). 따라서 기관평가시스템의 체계를 설계할 때 평가결과 활용목적은 평가목적에 부합되게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다.

(2)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목적 및 목표에 부합된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 및 지표 간 인과관계와 수준에 따라 적정한 수와 내용으로 상호 연계성을 갖고 중복 없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길우, 2005). 또한 이진주 외(1990)에 의하면 평가지표란 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전개한 것으로서, 규범적 지표와 서술적 지표,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의 도출과 그 결과의 유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지표가 평가목적 및 대상과 부합하고, 중복 없이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 항목 및 지표간 일관성이 부족하면 평가기준의 수립에 혼동을 초래하고 정부의 출연기관 정책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영·황병용·변재선, 2001).

(3) 평가기준의 공정성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옳고 그름,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등 수준의 가늠이 가능하게 된다. 미시적 평가기준으로는 정부 및 연구회와 출연(연) 사이에 상호 합의한 구체적인 목표체계가 사용 될 수 있고, 평가기준이 평가주체와 평가대상 간에 합의되어 있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출연(연)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방향성이나 전략 등과 관련한 거시적 평가에 있어서도 정부 및 연구회가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김재영·황병용·변재선, 2001).

덧붙여, 평가기준은 평가수행의 판단 준거로서 개별적인 평가기준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측정되며(이진주 외, 1990), 평가기준이 기관별 특성이나 관점에 따라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정량화 되어 있을수록 출연(연)에 대한 정부 및 연구회의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관평가시스템 운영절차와 관련된 요인

(1) 참여주체의 확신성

먼저 평가주체와 피평가기관간 상호신뢰는 평가 참여주체간의 확신성을 갖는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는 지식자본의 운영기반으로서 조직간 그리고 조직내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Bontis, 1999) 특히, 지식이전 및 조직간 학습의 성공에 있어서 기본요인으로 간주된다(Albino et. al., 1999). 또한 지금까지 Easterling(1995), Starr(1985), Smith & Kunreuther(2001)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신뢰와 수용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Karft & Clary(1991)는 정부와 사업주체에 대한 불신과 정책에 대한 감정적 평가 등이 수용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지식이전 및 조직간 학습에 있어서 지식교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신뢰와 함께 사전지식을 들 수 있다(Albino et. al, 1999).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전지식은 신지식의 축적 능력과 그것의 재생 및 사용능력을 모두 증가 시킨다(Grants, 1996). 따라서 주체의 사전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식이전의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이슈에 대한 지식은 그 인식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Slovic, 2000).

(2) 평가방식의 양방향 의사소통 충분성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권고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평가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부 및 연구회의 출연(연)과의 대면접촉 과정에서 기관평가와 관련된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교환되는데, 원활한 지식의 소통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간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핵심요소가 된다(김재영·황병용·변재선, 2001).

(3) 인센티브의 적절성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센티브 제도이다. 피평가자들의 입장에서 좋은 평가결과를 얻었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보상이 미약하다면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은 미약해지게 될 것이다(Atkinson, 1998; Daley, 1993).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의 좋은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인센티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인센티브의 내용을 근거로 한 유형으로 금전적 인센티브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수혜단위를 근거로 한 유형으로 개인단위로 보상해주는 방

법과 조직단위로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피평가 조직 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 평가참여를 유도할 만큼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규모가 적절하고 분배방식이 공정할 때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나아가 연구기관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수용성

조직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구성원들이 기관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기관의 성과향상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는 실효성 있는 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행태를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Anderson, 1984). 출연(연) 기관평가 역시 피평가 기관 구성원의 행태에 대한 변화나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은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수용성(Receptiveness; Acceptabilit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의 질(Quality)’(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Duncan(1981)은 순응(Compliance), 수용(Acceptance), 동조(Conformity) 등의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순응이란 ‘외면적인 행동이 특정의 규범 또는 규칙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외적인 행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반해 수용은 ‘내면적인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여 외면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태도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동조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여 순응과 수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용성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성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이재은 외(2006)가 있으며, 수용성 영향요인 및 제한 요인을 분석한 이희태(2006), 라휘문(2007), 윤수재(2002), 조성경(2003) 그리고 수용성 확보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모색한 류춘호(2005), 이종엽(2003), 강황선·권용수(2004)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해서 윤수재(2002)는 평가결과처리 이행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 강황선·권용수(2004)는 ‘평가결과의 향후 반영 의지’로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안의 반영의지와 부정적 평가결과의 향후 반영의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평가절차의 적절성, 평가지표의 타당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등 평가제도 요인을

독립변수로 보고, 평가의 유효성 인정, 평가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을 매개변수로 해서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견해로 매개변수의 경우는 이미 평가제도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류준호(2005)는 공공감사의 수용성에서 감사결과나 권고를 받아들이는 정도로 수감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까지도 수용성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종엽(2003)은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수용성 평가에서 정책수용을 정책수용주체가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과정·성과 등을 주체적 입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양태로 정의하고 심리적 내면화까지를 필수조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출연(연) 기관평가결과의 수용성은 ‘피평가기관 구성원이 인식의 공유과정을 통해 기관평가결과를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호의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란 심리적 내면화까지를 필수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관평가의 현장에서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피평가기관 구성원이 평가결과에 대해 향후 반영의지를 갖고 있으면 평가결과의 수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연구기관의 성과

연구기관 성과와 관련해서는 비영리조직과 공공조직의 경우 재무적 성과보다 기관에 의하여 추구되고 있는 임무(Mission)와 관련된 성과들이 더 중요하다(Brinckerhoff, 1994)고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연구부문은 성과측정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공공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관의 성과에 대한 논의들은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조직운영 부문에 점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이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구조직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의 성과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Chiesa et. al.(1996)의 감사모형(Audit model), Kanter 모형(Kanter, 1988), Hurley 모형(Hurley, 1997), Crow와 Bozeman(1998)의 환경맥락분류(Environmental Context Taxonomy) 모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모형들은 혁신, 창의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연구조직의 구조, 문화, 성격, 활동 및 과정과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연구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힌 점과 연구조직의 성과가 이들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측면에서 많은 공

현을 해 왔다(Jordan and Streit, 2000). 그러나 이들 모형들은 연구조직의 임무 및 목표와 관련된 포괄적 성과를 포함하고, 조직과 외부와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발전적 학습적 측면을 다루는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실정이다(이장재 외, 2003).

둘째,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이하 BSC라 한다)모형을 적용한 연구기관의 성과 논의를 들 수 있다. 기업 성과관리에 있어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방법의 대안으로 1991년 Eccles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aplan과 Norton(1992, 1993, 1996)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BSC 접근방법은 조직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기관의 성과관리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접근방법은 예산구조나 성과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는 변형된 BSC 접근방법이 요구되기도 한다(Olve, Roy & Wett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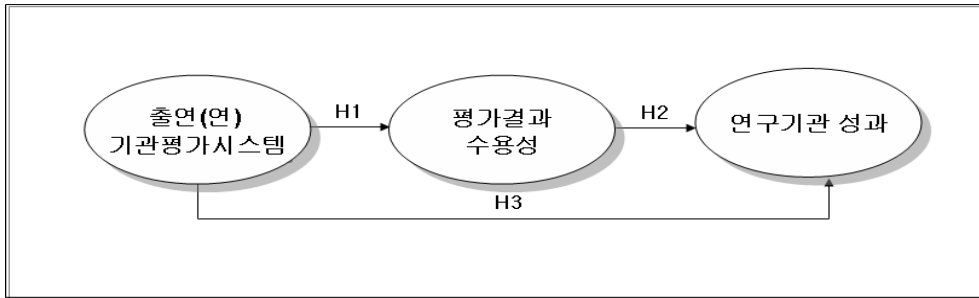
BSC 접근을 출연(연)에 처음 적용한 연구로서 이민형(2001, 2005)은 평가대상 성과를 6개 영역으로 확대하여 고객관점과 재무적 성과관점을 강조하고, 구성원 만족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장재 외(2003)의 연구는 Kaplan & Norton(1996)이 제시한 일반적 틀을 활용하여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혁신 및 학습의 4가지 관점에서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남영호·김병태(2005)의 연구는 Kaplan 기본 모형의 4개 관점을 분석하여 고객관점은 장기성과 고객관점과 단기성과 고객관점으로, 내부프로세스관점은 연구관리관점과 전략방향관점으로 구분하였고, 학습과 성장관점은 인적자원관점으로 변환하여 총 6개 관점의 성과모형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김병태(2004)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출연(연)의 재무관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급 시스템과 연구기관의 보수적인 예산 운영에 따라 안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성과와 관련해서는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수준의 성과지표가 공통적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출연(연)의 특성과 미션 등을 고려하고 연구기관의 포괄적 성과 및 관계, 학습측면 등을 포함한 BSC 방식에 따라 연구기관의 성과를 파악하고, 세부성과항목들은 연구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III. 연구모형과 가설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이 평가결과 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연구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기관평가시스템이 평가결과 수용성과 연구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2. 주요변수 및 가설

1) 독립변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이진주(1990), Daley(1993), Atkinson(1998), Albino, et. al.(1999), 김재영·황병용·변재선(2001), 이정원(2002), 박재희(2002), 이길우(2005) 등이 제시한 변수들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목적 및 평가결과 활용목적의 합리성,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 평가기준의 공정성, 참여주체의 확산성, 의사소통의 충분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등 6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2)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윤수재(2002), 강황성·권용수(2004)가 제시한 세부항목과 라휘문(2007)을 참고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태도로 개선권고(안)의 반영의지와 부정적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반영의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종속변수

연구기관 성과요인으로는 이민형(2001, 2005), Kaplan & Norton(1996), 이장재 외(2003), 김병태(2004), 남영호·김병태(2005) 등을 참고하여 소관 연구기관 구성원에 의해 지각된 BSC 관점의 연구기관 성과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성과 요인은 자금조달의 적절성, 자금흐름의 건전성, 그리고 재무상태의 건전성으로 측정하였다. 고객성과의 경우 사업성과 개선, 고객만족 제고로, 내부프로세스성과의 경우 전략수립 프로세스 개선,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예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으로 측정하였다. 학습성장 성과의 경우 인적자원 성장, 조직문

〈표 3〉 기관평가시스템이 수용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별 조작적 정의

요인	세부 항목	측정	비고	
기관평가 시스템 구성요인	평가목적 및 평가결과 활용목적의 합리성	평가목적의 구체성	7점 척도	차의환(1999), 이정원(2000), 문영세(2001), 박재희(2002), 김명수(2003), 박병식(2003)
		평가결과 활용시 평가목적과의 부합 정도	〃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	평가목적 및 대상과의 부합성	〃	송대회(1985), 이진주(1990), 민철구(1994), Olve et al.(1998), 차의환(1999), 박재희(2002), 이길우(2005)
		체계성	〃	
	평가기준의 공정성	기관특성, 관점에 따른 평가기준의 객관적 설정	〃	Jones(1991), 송대회(1985), 이진주(1990), Olve et al.(1998), 민철구(1994), 차의환(1999), 문영세(2001), 김재영·황병용·변재선(2001), 박재희(2002), 박병식(2003), 김명수(2003)
		평가기준의 정량화 정도	〃	
	참여주체의 확산성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	〃	차의환(1999), Bontis, N.(1999), Albino, et. al.(1999), 김재영·황병용·변재선(2001), 문영세(2001), 박재희(2002), 김명수(2003), 박병식(2003)
		연구회의 평가에 필요한 사전지식 보유 여부	〃	
		연구기관의 연구회에 대한 신뢰	〃	
		연구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전지식 보유 여부	〃	
	의사소통의 충분성	양방향 의사소통	〃	차의환(1999), 문영세(2001), 김재영·황병용·변재선(2001), 박재희(2002), 박병식(2003), 김명수(2003)
		충분한 시간	〃	
	인센티브의 적절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규모의 적절성	〃	Daley(1993), Atkinson(1998), 차의환(1999), 문영세(2001), 박재희(2002), 박병식(2003), 김명수(2003),
		인센티브 분배방식의 공정성	〃	
평가결과 수용성 구성요인	기관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태도	개선 권고(안) 반영의지	〃	윤수재(2002), 강황선·권용수(2004), 라휘문(2007)
		부정적 평가결과 반영의지	〃	
연구기관의 성과 구성요인	재무성과	자금조달의 적절성	〃	이민형(2001, 2005), Kaplan & Norton(1992, 1993, 1996, 2001), Eickelmann(2001), 이장재 외(2003), Niven(2003, 2005), 김병태(2004), 남영호·김병태(2005), 이창길(2007)
		자금흐름의 건전성	〃	
		재무상태 건전성	〃	
	고객성과	사업성과 개선	〃	
		고객만족제고	〃	
	내부 프로세스성과	전략수립 프로세스 개선	〃	
		사업관리프로세스 개선	〃	
	학습성장성과	예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	
인적자원 성장		〃		
	조직문화 성장	〃		

화 성장으로 측정 하였다.

이상의 측정변수와 관련된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리커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 <가설 1>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연구기관 구성원의 평가결과 수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연구기관 구성원의 평가결과 수용도는 연구기관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은 연구기관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조사 대상기관 및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관련 문헌조사를 종합,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정립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연구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모집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 직원들이 포함되었다. 샘플대상은 23개 소관 연구기관의 부원장, 행정(기획)실장, 연구조정(기획·예산)팀장, 노조위원장 등 구성원 551명이었으며, 2007년도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설문 조사기간 동안 응답자에게 서면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일괄 회수하였으며 SPSS 15.0과 AMOS 16.0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표본의 구성

최종적으로 확정된 표본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사항에 따라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응답자의 분포

특성명	항목	표본수	비율(%)
연 령	30대 이하	193	35.0
	40대	252	45.7
	50대	95	17.2
	60대		
직 종	연구직	309	56.0
	행정직	191	34.7
	사무직	31	5.6
	기타	12	2.2
직 급	원급	127	23.0
	선임급(부연구위원)	109	19.8
	책임급(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214	38.9
	기타	83	15.0
직 책	담당자	258	46.8
	보직자	198	35.9
	기타	76	13.8
최종학력	학사	184	33.3
	석사	130	23.6
	박사	222	40.2
노조 가입여부	노조원	148	26.9
	비노조원	382	69.3
근무 기간	1-5년	145	26.3
	6-10년	127	23.0
	11-15년	107	19.4
	16-20년	108	19.6
	21-25년	37	6.7
	25년 이상	18	3.3

주 : 표본수에 일부 결측값 존재

3. 분석방법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 변수별 신뢰도를 검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과 수용성, 연구기관 성과와의 세부 인과관계를 측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기관평가 시스템에 관한 인식과 수용태도 등을 측정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각 요인별 데이터를 기관별 데이터로 변경한 후 회귀분석과 요인등급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V. 분석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1) 변수별 신뢰성 검증

고객성과변수의 Cronbah's α 계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변수의 Cronbah's α 계수는 다음 <표 5>와 같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설문지의 구성항목들이 요인을 도출하는데 적절한 측정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측정변수별 신뢰성 분석 결과

연구단위(Constructs)		최초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α
출연(연) 기관평가 시스템	참여주체의 확산성	4	4	0.914
	평가목적 및 평가결과 활용목적의 합리성	2	2	0.917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	2	2	0.914
	평가기준의 공정성	2	2	0.868
	의사소통의 충분성	2	2	0.951
	인센티브의 적절성	2	2	0.899
평가결과 수용성	대응태도	2	2	0.920
연구기관 성과	재무성과	3	3	0.937
	고객성과	2	2	0.556
	내부프로세스성과	3	3	0.945
	학습성장성과	2	2	0.913

2) 타당성 검증

측정항목들의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요인별 구성개념의 최적상태는 CFI, NFI, RMSEA, CMIN, P값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지수

요인	CMIN	df	P	CFI	NFI	RMSEA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3.858	71	0.000	0.977	0.969	0.072
평가결과 수용성	6.534	60	0.000	0.964	0.958	0.097
연구기관 성과	5.526	31	0.000	0.975	0.970	0.090

분석결과 모든 요인들은 적합도 평가기준에서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RMSEA값이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CMIN에 대한 P값이 0.00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CFI, NFI등의 값이 모두 우수모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계수, 2004)(강병서·김계수, 2005).

2. 가설 검정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연구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관평가시스템과 평가결과 수용성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96.7%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평가시스템이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평가시스템의 상대적인 중요성(β)은 0.98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높으면 연구기관의 수용성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 기관평가시스템-평가결과 수용성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 편차	β		
기관평가시스템	1.561*	0.061	0.984	25.512	0.000
F=650.845* R ² =0.969 Adjusted R ² =0.967					

* P < .01

구체적으로 세부 요인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참여주체의확신성의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

성의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34.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활용)목적의 합리성의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31.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평가기준의 공정성의 평가결과 수용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30.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평가결과 수용성과 연구기관 성과등급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연구기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약 85.0%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수용성이 성과등급에 대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과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수용성의 상대적인 중요성(β)은 0.92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면 연구기관 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평가결과 수용성은 연구기관 성과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8> 평가수용성-연구기관 성과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 편차	β		
평가 수용성	0.548*	0.049	0.926	11.214	0.000
F=125.750* R ² =0.857 Adjusted R ² =0.850					

* P < .01

셋째, 기관평가시스템과 성과등급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에서 연구기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약 87.4%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평가시스템이 성과등급에 대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 성과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평가시스템의 상대적인 중요성(β)은 0.93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높으면 연구기관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9> 기관평가시스템-연구기관 성과간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 편차	β		
기관평가시스템	0.881*	0.071	0.938	4.830	0.000
F=153.917* R ² =0.880 Adjusted R ² =0.874					

* P < .01

구체적으로 세부 요인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참여주체의 확산성의 연구기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약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의 연구기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약 28.9%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기준의 공정성의 연구기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약 2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인센티브의 적절성의 연구기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약 23.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기관평가 시스템은 평가결과 수용성과 연구기관 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결과 수용성은 연구기관 성과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관평가시스템의 세부 요인 중 평가결과 수용성과 연구기관 성과에 공통적으로 참여주체의 확산성과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이 좋은 영향을 미치며, 평가기준의 공정성, 평가(활용)목적의 합리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등은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출연(연) 기관평가 시스템에 관한 인식과 수용 태도와 관계에 대하여 측정하여 보았다. 먼저 각 기관별 요인간 차이검증을 위해 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기관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각 항목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10> 연구기관별 요인간 분산분석 결과

항목	자유도	F	유의도
연구기관 성과	22	3.030	0.000
기관평가시스템	22	2.747	0.000
평가결과 수용성	22	2.746	0.000

* P < .01

다음으로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기관평가시스템에 관한 인식과 수용성 태도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11>과 같이 각 요인에 대한 등급을 고, 중, 저로 나누어 기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등급 배분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7점 척도에 따라 '저' 등급은 평균값 1점 이상~2점 미만, '중' 등급은 2점 이상~5점 미만, '고' 등급은 5점 이상~7점 이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1〉 기관 등급별 차이검증 결과

등급	성과등급	기관평가시스템 등급	평가 수용성 등급
고	2-2기관, 3-1기관, 3-5기관, 3-6기관, 2-5기관, 4-4기관 4-5기관, 2-6기관	2-2기관, 3-1기관	2-2기관, 3-1기관, 4-3기관, 3-4기관, 3-5기관, 1-5기관, 3-6기관, 3-7기관, 2-5기관, 4-4기관, 4-5기관, 2-6기관
중	1-1기관, 1-2기관, 2-3기관, 4-2기관, 1-3기관, 3-2기관, 2-4기관, 3-3기관, 3-4기관, 4-3기관, 3-4기관, 1-5기관, 3-7기관	4-2기관, 1-3기관, 3-2기관, 2-4기관, 3-3기관, 1-4기관, 4-3기관, 3-4기관, 3-5기관, 1-5기관, 3-6기관, 3-7기관, 2-5기관, 4-4기관, 4-5기관, 2-6기관	2-3기관, 4-2기관, 1-3기관, 3-2기관, 2-4기관, 3-3기관, 1-4기관
저	4-1기관, 2-1기관	4-1기관, 2-1기관, 1-1기관, 1-2기관, 2-3기관	4-1기관, 2-1기관, 1-1기관, 1-2기관

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을 연구분야를 기준으로 4개 유형별로 분류함.
경제정책분야 5개기관: 1-1에서 1-5, 자원·인프라분야 6개 기관: 2-1에서 2-6,
인적자원분야 7개 기관: 3-1에서 3-7, 공공정책분야 5개 기관: 4-1에서 4-5.

분석결과 〈표 11〉에서 처럼 고, 중, 저에 위치한 기관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2 기관, 3-1 기관 등은 모든 요인에 있어 높은 등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4-1 기관, 2-1 기관의 경우 모든 요인에 있어 가장 낮은 등급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등급에 따라 나머지 요인에 대한 등급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출연(연) 성과향상을 위한 기관평가시스템의 발전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이 연구기관 구성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연구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3개 소관 연구기관 구성원 551명에 대한 분석결과 기관평가시스템은 평가결과 수용성과 연구기관 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평가결과 수용성은 연구기관 성과에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평가시스템의 세부요인 중 평가결과 수용성과 연구기관 성과에 공통적으로 참여주체의 확신성과 평가항목 및 지표의 체계성이 좋은 영향을 미치며, 평가기준의 공정성, 평가(활용)목적의 합리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등은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과가 높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평가결과 수용 태도도 높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관평가시스템의 전반적 취약점들에 의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고, 평가결과에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점들의 보완과, 평가결과 수용성 및 연구기관 성과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관평가시스템의 세부요인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연구에서 저하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 제안들은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의 개인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평가시스템 체계 측면에서는 평가(활용)목적은 기관평가 참여주체들의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게 구체적이며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평가의 전략성 강화 차원에서 기관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평가지표의 활용과 가중치 안배, 정부 및 연구회와 출연(연)간 평가지표에 대한 합의, 기관별 목표를 기준으로 달성도의 절대평가방식 변경, 과거 성과지표와 미래 성과지표의 균형적 구성, 출연(연) 내부 성과관리와의 연계를 통한 유효성 제고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평가시스템 운영절차 측면에서는 정부 및 연구회는 평가주체로서 산하 출연(연)의 현황, 이슈 등 관련 지식의 보유와 축적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단의 전문성, 정직성, 책임성을 고려한 구성과 이들의 사전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참여 주체간 양방향 의사소통의 강화를 위한 대면접촉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평가결과보고서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평가단, 출연(연)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신뢰성 있고 유용한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노력 등은 일례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인센티브의 규모 및 배분방식 등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출연(연)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며, 기관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인센티브의 규모를 높이고 분배 방식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평가결과 업무반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연구기관 성과향상과 관련해서는 평가영역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지표 개선, 소관 연구기관의 표준화된 성과분류와 측정도구의 개발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방향과 본 논문의 한계점과 관련, 먼저 본 논문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통

합되고 아직까지 표준화된 소관 연구기관 성과 분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로 연구기관성과를 정량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연구기관 소속 개인의 만족차원에서 느끼는 성과로 측정하였다. 이번 연구와 향후 3-5년간의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량적 성과와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 상 기관평가시스템의 수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을 충실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용성과 효과성 간의 차이나 수용도에 따른 상·하위 기관간 성과 차이분석 등은 향후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설계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서·김계수 (2005),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데이터솔루션.
- 강황선·권용수 (2004),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 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계수 (2002), 「산업기술연구회 기관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STEPI.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병태 (2004), “BSC를 활용한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 연구”, 국민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재영·황병용·변재선 (2001), 「정부연구기관의 기관평가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남영호·김병태 (2005),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지표의 BSC 관점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3권 1호, pp. 265-293.
- 노화준 등 (1996), 「연구기관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개발과 가중치 설정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라휘문 (2007),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의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1권 2호, pp. 199-224.
- 류춘호 (2005), “공공감사와 감사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민철구 등 (1994),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기관평가모델”, 과학기술정책동향, 제4권 1호, pp. 70-77.
- 박재희 (2002), 「기관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송환빈 (2004), “한·일 공공연구기관 평가시스템의 비교·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

사 학위논문.

- 송형주 (200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길우 (200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제도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2004년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2005), “기관평가제도 운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8권 특별호 pp. 70-77.
- 이민형 (200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지표체계 분석」,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_____ (2005), “BSC를 적용한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관리”, 과학기술정책 통권 제154호.
- 이장재·김재영·김현민 (200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균형적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정부학연구, 제9권 2호, pp. 57-92.
- 이재은·김영평·정윤수 (2006), “발전원 위협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진주 외 6인 (1990), 「연구개발평가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 이종엽 (2003), “의약분업정책의 정책수용성 평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찬구 (2004),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산업기술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pp. 405-433.
- 이찬구·이성국 (2004),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지적자본 모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59-78.
- 이철원 (1997), “정부출연연구소 기관평가제도의 설계 및 운영현황”, 과학기술정책, 제7권 10호 pp. 35-48.
- 이희태 (2006),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성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엄준용·조홍순 (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의 발전 방향 탐색”, 교육문제연구, 제27집 pp. 107-133.
- 윤수재 (2002), “중앙행정기관 정책평가의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성경 (200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의 수용행태 비교 분석-지식·신뢰·인식·수용성 그리고 참여”, 한국공공정책연구, 제13호 pp. 59-77.
- 최희운 (198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합관리기법과 연구개발평가모형의 개발 및 특정연구

- 개발사업의 종합평가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 황병상·강근복 (2005),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의 발전방안 논고: 기초기술연구회의 평가사례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학회 제14권 제1호, pp. 121-149.
- 황병용 (2006), 「200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보고서」, 국무조정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2006 연구기관 평가편람」
- _____ (2007가), 「2006년도 업무성과」
- _____ (2007나), 「2006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 Albino, V., Garavelli, A. and Schiuma, G. (1999), “Knowledge Transfer and Inter-Firm Relationships in Industrial Districts: The Role of the Leader Firm”, *Technovation*, 19: 53-63.
- Anderson, James E. (1984), *Public Policy-Making*, Holt-Rinehart and Winston.
- Atkinson (1998), “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ncentive Compensation”, *European Management Journal*, 16(5): 552-561.
- Bontis, N. (1999), “Managing Organizational Knowledge By Diagnosing Intellectual Capital: Framing and Advancing the State of the Field”, *Int. J. of Technology Management*, 18(5/6/7/8): 433-462.
- Brinckerhoff, Peter C. (1994), *Mission Based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Sons, Inc.
- Chelimsky, Eleanor. (1989), *Evaluating Public Programs*, In James L. Perry(ed.),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Jossey-Bass Publishers.
- Chester, Arthur N. (1995), “Measurements and Incentives for Central Research”, *Research Technology Management*, July-August: 14-22.
- Chiesa, V., Coughlan, P. and Voss, C.A. (1996), “Development of a technical innovation audit”, *Journal of Productive Innovation Management*, 13: 105-136.
- Crow M. and Bozeman B. (1998), *Limited By Design: R&D Laboratories in the US National Innovation System*, New York.
- Daley (1993), “Productivity Tools and Employee Incentives: Availability and Association among North Carolina Municipalities”,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17(2): 161-171.
- Duncan, J.W. (1981), *Organization Behavior*,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Grants, R.m. (1996), “Toward A Knowledge Based Theory of Firm”, *Strategic Management*

- Journal, 17: 109-122.
- Hurley, J. (1997), *Organization and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 Kanter, R.M. (1988), "When a thousand flowers bloom: structural, collective, and social conditions for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 169-211.
- Kaplan R.S. & Norton D.P. (1992),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70(1): 71-79.
- _____ (1993), "Putting the Balanced Scorecard to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71(5): 134-147.
- _____ (1996),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74(1): 75-85.
- Kerssens-van Drongelen, Inge C. and Cook Andrew (1997), "Desig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system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es", *R&D Management*, 27(4): 345-357.
- Olve N. G, J. Roy & M. Wetter (1998), *Performance Drivers*, John Wiley & Sons Ltd..
- Rich, R. F. (1977), *Uses of Social Science Information by Federal Bureaucrats: Knowledge for Action versus Knowledge for Understanding*, In C. H. Weiss(ed.), *Using Social Research in Public Policy Making*,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mith, H. and Kunreuther, H. (2001), "Mitigation and Benefits Measures as Policy Tools for Siting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ies: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1(2): 371-382.
-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Earthscan, UK.
- Starr C. (1985), "Risk Management, Assessment, and Acceptability", *Risk Analysis*, 5: 97-102.
- Vedung, Evert. (199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황병용

일본 쓰쿠바대 대학원을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는 “과학기술지방화와 과학기술협력”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기관·프로그램 평가, R&D 인력 육성 등이다.

김대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는 “SCM의 이해와 활용”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SCM, 서비스 운영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이다.

이장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국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사업 분석 및 평가, 정책네트 워크 분석 등이다.